



###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행 <30>

학승이 물었다.  
“학인(學人)과 도(道)가 서로 보지 못할 때 도 서로 통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짐작(測)으로 통하느니라.”  
학승이 물었다.  
“짐작하지 못해도 통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일 뿐이야.”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짐작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을 바꾸어 가까이 가면 도는 더 멀어지는 법이야.”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어찌 스스로 숨으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잖아”  
학승이 물었다.  
“어찌 바꾸지 말라고 말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래야 합당하기 때문이야.”

## 중생을 교화하겠는가?

본질이 바뀌어진 것이다. 그렇게 바뀌어진 마음으로 도를 알려하니 도가 나타날 리 없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야 한다. 마치 바깥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방안에 있는 그릇 속의 물은 고요하듯이 마음이 완전한 고요를 얻으면 그때 문득 내 마음이 도와 합치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조주 스님이 문하 대중에게 설법했다.  
“교화할 수 있는 사람은 금생의 일이지만, 교화할 수 없는 사람은 3생의 원한(?)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다고 교화하지 않으면 모든 중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교화한다고 해도 역시 원한을 맺는 것이다. 도대체 그대들은 교화하겠는가, 말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교화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일체 중생이 그대를 볼 수 있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금생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전생의 업보가 크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선(禪)을 말하고 도(道)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다생의 업보가 크기 때문이다. 원래 업보가 중하면 정법을 멀리하는 법이다. 그런데 살하는 자와 듣는 자가 3생의 원한을 가진 사이라면 깨달음은 고사하고 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학승이 “화상께서는 중생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조주 스님이 보인다는 말이다. 조주 스님은 대답 말미에 “하물며 도를 닦는 너도 이 노승을 보는데 어찌 일체 중생이 너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네 말대로 일체 중생이 너를 보지 못한다면 그들을 불국토로 인도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들의 눈에 네가 보인다면 너는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찌 교화한다는 망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그대가 또한 교화하지 않더라도 중생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 그대들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자, 남자들이여! 중생을 교화하겠는가, 말겠는가? 만일 본 남자에게 묻는다면 “중생을 교화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겠다. 조주 스님이 “지금 내가 보이는가?” 하고 물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겠다.

천하의 남자들이여,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고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중생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를 알겠는가? 그대들이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본 남자의 과오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즉시 알 것이다.

스님이 문하 대중에서 설법했다.  
“8백 명이나 부처가 되려는 사람은 있어도 한 사람의 도인(道人) 찾기는 힘들다.”

師示衆云 八百箇作佛漢 覓一箇道人難得

8백 명이 아니라, 황하수 모래알만큼이나 되는 수행자들이 부처가 되려고 수행한다해도 절대 부처가 되지 못한다. 설사 천년을 다시 태어나 수행한다해도 절대 성불(成佛)하지 못한다. 부처가 되려는 자는 불법을 잘못 안 것이다. 알겠는가?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옛 스승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지음자(知音者)를 만나기 어렵다고.

■ 무불선원 선원장

###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짐작은 물론이고

### 깨달음도 다 내다버린다

### 부처가 되려는 자는 불법을 잘못 안 것

“볼 수 없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볼 수 없다는 것인가?”  
학승이 말했다.  
“무상(無相)이기 때문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지금 내가 보이는가?”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중생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네 스스로 알아차려라.”

師示衆云 教化得人 是今生事 教化不得 底人是第三生 若不教化 恐墮卻一切衆生 教化亦是冤 是你還教化也 無僧云 教化師云 一切衆生 還見你也 無學云 不見師云 爲什麼不見學云 無相師云 卽今還見老僧否學云 和尚不是衆生師云 自知罪過卽得

問 學人道 不相見時 還通互也無  
師云 測得通互  
學云 側他不得通互箇什麼  
師云 不與麼是你自己  
學云 和尚還受測也無  
師云 人卽轉近 道卽轉遠也  
學云 和尚爲什麼自隱去  
師云 我今現共你語話  
學云 爭道不轉  
師云 合與麼

도(道)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가갈 수 없고 만져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깨달아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설사 누가 깨달아서 안다고 해도 그것도 또한 어디까지나 짐작으로 아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짐작은 물론이고 깨달음도 다 내다버린다.

그런데 도는 사람들이 도를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항상 사람과 통해 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도이고, 걸어가는 것도 도이고, 일을 하는 것도 도이고, 책을 읽는 것도 도가 드러난 것이다. 설사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도 도가 드러난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세상은 도 아님이 없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상사가 곧 도인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도는 알려고 찾아다니고 얻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더 얻기 어렵다. 알려고고 얻으려하면 벌써 고요한 마음이 흔들린 것이고 그러면 사람의

###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①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

## 염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계·정·혜

<역대법보기>는 돈황본 자료로는 스타인 516, 1611, 1776, 1916 및 페리오 2125, 3717.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초기의 선종사서 가운데 탁락한 부분이 없이 가장 완전한 형태의 전등사서이다. 오조홍인 이후의 초기선종 사서 가운데 사천성 검남의 정종사(淨宗寺) 및 보당사(保唐寺)를 중심으로 번성한 선종의 역사를 축으로 삼아 선사상을 체계화한 책이다. 보당무주(保唐無住: 714~777)가 입멸한 이후 오래 지않아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편집된 것으로 확실한 편집자의 명칭은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여기에서는 신라의 김화상 무상(無相 곧 정종무사(淨宗·684~762)의 선법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역대법보기>는 대정신수 대장경 제51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는 전등사서로서의 성격이다. 당시에 소위 북종과 남종의 정통논쟁의 와중에서 남종의 종지가 정통으로 굳어졌다. 이런 틈을 타서 북종과 남종과 다른 제삼의 선종을 주장한 계파가 흥인 - 지선 - 처적 - 무상 - 무주로 전승되는 법맥이었다. 이들은 자파의 정통을 주장하기 위해 <역대법보기>(774년 무렵 성립)를 내세웠다. 특히 정법안장의 상징인 의발(依鉢)의 전승을 보리달마 - 혜가 - 승찬 - 도신 - 흥인 - 해능 - 황제 - 지선 - 처적 - 무상 - 무주로 주장함으로써 정통임을 강조했다. 이것은 8세기에 치열하게 전개된 선법의 정통논쟁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등장했음을 말해준다. 둘째는 정종무상의 선법이다. 무상의 선사상은 기본적으로 삼구법문으로 요약된다. <역대법보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돈황사본 <역대법보기>

“김화상은 매년 설달과 정월을 사부대중 백천만인을 모아서 수계를 했다. 수계를 할 때에 도량을 깨끗이 정하고 고좌(高座)에서 설법을 했다. 이 때 먼저 인성염불(引聲念佛)을 하는데 염불소리를 다 내쉬어 그 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계속한다. 그리고 나서 무억(無憶: 일체의 짐작(相)을 떠나는 것), 무념(無念: 일체의 망념을 여의는 것), 막망(莫妄: 일체의 대상을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할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무억은 계(戒)이고, 무념은 정(定)이며, 막망은 혜(慧)이다. 이 삼구가 곧 총지문(總持門)이다.”

이 삼구법문에 대해 종밀은 다음과 같이 세 번째의 막망(莫妄)을 막망(莫忘)으로 바꾸어 해석을 가한다.

“삼구라는 것은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忘)이다. 생각에는 이미 지나간 경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억하지 않는 것이 무억(無憶)이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영쇠성고(榮衰盛故)에 대하여 염려하지 하는 것이 무념(無念)이며,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지혜에 상응하여 혼탁(昏蝕)이 없는 것이 막망(莫忘)이다. 혹은 외경에 대하여 억념이 없고, 내심에 대하여 망념이 없으며, 수연에 대해서 의지함이 없는 것을 계·정·혜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비록 종지를 연설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든 종지는 이 삼구에 귀속된다.”

또한 <역대법보기>에서는 삼구를 각각 삼학에 배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삼구는 곧 총지문이다. 짐작(相)에 대한 억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계문이고, 분별에 대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문이며, 인연법에 대한 분별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혜문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갖가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계·정·혜이다. 과거 미래 현재와 형사와 같이 많은 제불도 바로 이 가르침에서 출현하였다. 그리니 이 밖에 따로 가르침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인성염불은 삼구 가운데 무념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이다. 곧 수계법회 때 한번 호흡을 크게 내쉬면서 염불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멈추어 고요해지면 일체의 상에 대한 억념을 없애고, 분별에 대한 망념을 없애며, 일체의 것을 올바르게 사유하여 잊지 않도록 하는 삼구의 가르침을 실천 것이다. 곧 일자염불(一字念佛)을 하였다. 일자염불은 처음에 어떤 한 글자를 선택하여 목소리를 길게 뽑으면서 부처님을 염하는 실천법이다. 그 목소리를 점차 약하게 하고, 나아가서 종국에는 무성(無聲)이 되어 소리가 부처님을 대신해 생각하는 말 그대로 염불이 된다. 이리하여 소리로 시작해 그것이 마침내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된다. 만약 이것이 한번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반복하여 염불이 잘 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와 같이 한번의 소리를 길게 끌어 염불의 경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성염불이라 한다.

이처럼 무상의 선사상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법보기>는 한국의 선종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승기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나무"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에게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년이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수강생 모집

사주 명리학에 입문후 열심히 하셨으나 공부에 큰 진전이 없어 고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참석하셔서 좋은 공부와 인연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 공개강의

■ 일시 : 2010년 9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 13시

■ 과 목 : 명리학, 기문둔갑, 육효, 육임, 기타

■ 강 사 : 전, 호서대 기문 관상학 주임교수

- 전, 동아 - 불교 문화센터 명리학, 기문학 강사
- 전, 사단법인 동양사상연구회 부회장 직강!

■ 장 소 : 난곡입구사거리 다비취안경점 홍심대리점 안골목 정운철학원

■ 전 화 : 010-7154-8835  
011-241-9681

## 정운철학원

## 종무법인 禪農教團

(법인등기 제 000006호)

##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建明第二今 法明第十朝 幢佛迦八禪 立勅葉代農 宗曹首西立 旨溪傳天家 是燈紀風

-永嘉玄覺證道歌中引用-

법의 깃발 높이 이 道理 세움이여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스물 여덟 등불이 시천의 불 밝혀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 입 종 비 : 없음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각 사찰 인감등록 및 발급(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은지리 611번지
- 사 무 국 : 070)8843-7620 / FAX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